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28일 밤하늘 수 놓는다

오후 8시부터 35분간 불꽃쇼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 배치
대규모 인파 대비 안전조치 만전



오는 28일 '2023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앞바다에서 열린다. 지난해 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모습. <여수시 제공>

여수의 대표 가을 축제인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오는 28일 밤하늘을 수놓는다. 축제는 '섬, 바다 그리고 불꽃'이라는 주제로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앞바다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불꽃놀이와 거리 공연이 진행된다. 축제의 백미인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오후 8시부터 장군도 앞바다에서 35분간 펼쳐진다. 여수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당일 오후 5시부터 이순신광장, 종화동 사거리, 해양공원 입구, 견어불상가 입구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오후 7시부터는 교동사거리, 이순신광장 앞, 여수경찰서 구간도 막는다. 이들 구간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버스 운행 시간은 밤 11시까지 연장된다. 여수시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여수경찰, 여수해양경찰과 안전 관리를 한다. 관계 기관과 안전 전문 용역,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행사장에 배치된다. 해양공원과 돌산 진두 불꽃장에는 임시 화장실 4곳을 추가 설치한다. 종합안내소 3곳과 응급의료실도 운영한다. 불꽃축제 행사장을 오갈 수 있는 무료 순환버스 5대도 이날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다닌다. ▲엑스포장 스키아터워 입구-중앙초등학교 ▲진남경기장-중앙초등학교 ▲국동수변공원-남산동 무지개아파트 앞 3개 노선으로 운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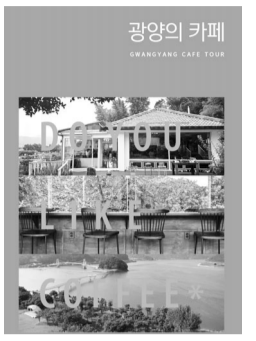
행사장 인근 19곳에는 약 3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이 마련된다. 임시 주차장은 박람회장, 스키아터워, 중앙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오동도 공영주차터워, 옛 돌산

회타운, 국동수변공원, 진남경기장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열린 불꽃축제장에는 19만 4000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이문봉 여수밤바다불꽃축제추진위원장은 "여수

만의 이야기가 있는 색다른 불꽃쇼를 준비하고 있으니 여수밤바다에서 아름다운 추억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미술관 카페·숲명 카페... 광양 26곳 소개 책자 나와

'한옥 카페' '미술관 카페' '숲명 카페'... 광양의 개성 넘치는 카페 26곳을 알아볼 수 있는 책자 '광양의 카페'가 나왔다. (좌상)상관텐츠그룹과 한국여행작가협회는 발품을 팔아 광양읍, 봉강·육룡 등 4개 권역에 흩어진 26개의 카페를 발굴했다. 광양시는 도심 속 커피 한 잔으로 휴식을 취하려는 새로운 여행 동향을 고려해 이번 책자 발간을 기획했다. 책자 한 권 들고 '카페 여행'을 다니도록 손바닥 크기만 만들었다. 첫 장에는 카페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지도가 펼쳐지고, 이후 카페의 외관·대표 음식·전화번호·누리집 등을 안내한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제외하고 커피의 맛과 향이 뛰어나고 특유의 개성을 지닌 카페 위주로 엄선했다. 광양에는 한옥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카페, 자연과 함께 하는 '숲명 카페'·'물멍 카페', '미술관 속 카페' 등이 있다. 이 책자는 용산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중이 이용시설과 관광안내소, 중앙터미널, 광양예술창고 등 광양 대표 관광지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광양시 문화관광 누리집에서도 '광양의 카페'를 찾을 수 있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최근 카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쉼터이자 위로가 되는 새로운 개념의 여행지"라며 "이번에 제작된 '광양의 카페'는 책자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감성을 자극하고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GS칼텍스 참사람상' 5명 시상

화재 피해 장애인 구조자 등

GS칼텍스재단(이사장 허진수)이 올해 따뜻한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사회공헌에 기여한 시민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GS칼텍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여수시 소재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GS칼텍스재단 김창수 상임이사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S칼텍스 참사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GS칼텍스 참사람상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제정됐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거나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이들, 그리고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선행을 펼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최호 수상자는 지난 2021년 여수 돌산대학교 해상에서 추락자를 구조하기 위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활동을 펼친 이태규씨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 GS칼텍스 참사람상은 구조 현장의 위험

성, 구조 대상자의 피해 우려 수준, 구조활동의 신속성 및 효과성, 사회적 귀감 정도 등을 고려해 화재 피해 장애인 구조자 등 5명의 수상자를 정했다. 우선 여수 소노호텔의 직원인 남우창 씨와 방민태 씨는 지난 7월 5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외기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자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을 등에 업은 상태로 5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대피시켜 인명을 구조했다. 순천시청 유도팀 소속 선수인 양서우는 지난 8월 5일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갑작스러운 이안류 현상으로 인해 파도에 휩쓸린 78세 어르신을 목격 후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 인명 구조에 나섰다. 여수소방서 소속 생활구조구급팀장인 주영찬씨는 지난 1월 24일 비번 중에 순천 가곡동 소재 목욕탕에서 기도 폐쇄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세 어르신을 발견 후 음식물을 토해내게 하고 전신 마사지를 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해 생명을 구조했다. 순천 김동진씨는 지난 8월 7일 고흥군 거름도 해



'GS칼텍스 참사람상' 수상자들과 김창수(왼쪽 세 번째) GS칼텍스재단 상임이사과 시상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제공>

상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의 화재를 발견한 뒤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화기를 활용, 화재를 완전히 진화해 큰 화재로 인해 재산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GS칼텍스재단 관계자는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들이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구함으

로써, 우리 사회가 정감 있고 온기가 느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GS칼텍스 참사람상의 취지에 적합한 분들이 발생하면 수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례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28일 광양실내체육관

광양시는 오는 28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2023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배움과 나눔, 일상에서 누리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평생학습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등에서 배운 학습 성과를 공유한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평생학습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광양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누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광양시립국악단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열고 3년간 한글 교육을 마무리한 어르신들의 수료식이 진행된다. 성인문제 문제 풀이와 17개 팀 장애인·비장애인 동아리 공연이 이어진다. 행사장에는 33곳의 체험공간이 운영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공영민(앞줄 오른쪽) 고흥군수가 지난 24일 '3회 고흥 유자축제(11월3~5일)' 행사장을 찾아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유자축제 준비상황 점검 현장 보고회

11월3~5일 12만평 유자밭서 열려
고흥군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3회 고흥 유자축제'를 앞두고 지난 24일 현장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공영민 고흥군수는 간부 공무원, 축제추진위원회 등 40여 명과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주차장 조성 등 각종 시설물 설치, 관람 동선, 공간 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올해 세 번째 열리는 '고흥 유자축제'는 11월3~5일 사흘간 12만평(39만6694㎡) 펼쳐진 유자밭에서 열린다. 5만 그루 유자나무에서 열린 500만 개 유자 향

을 느낄 수 있다. 고흥군은 관람객 안전을 위해 갑판 길을 조성하고, 인근 농지에 임시 주차장을 열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오감 만족 체험형 행사'로 치르며 유자밭 야간 경관, 드론 공연, 불꽃놀이 등 볼거리도 더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 등 관람객 편의시설은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며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빈틈없는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자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 27~28일 '애니메이션 페스타'

공연·애니 상영·체험행사 등
'2023 순천 애니메이션 페스타'가 27~28일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2023 순천 애니메이션 페스타'는 정원에 문화 콘텐츠의 색을 입혀 지역을 애니메이션 기회발전특구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순천을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콘텐츠 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갯벌공연장과 습지센터 일원에서 공연·애니메이션 상영·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우선 갯벌공연장에서는 27일 성우들이 참여하는 더빙쇼, 애니메이션 주제곡 공연과 아이들이 좋

아하는 보로로, 티시태시, 반지 등의 캐릭터 퍼레이드와 함께 4편의 TV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또 습지센터 일원에서는 27일과 28일 이틀간 페이스페인팅, 전상 애니메이션 체험, 관찰 인형 만들기, 종이 인형 만들기 등 10가지 이색적인 애니메이션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습지센터 영상관에서도 이틀간 3편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상영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낮 12시 30분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을 시작으로 꿈의 다리를 건너 습지센터까지 다양한 캐릭터 코스튬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올려 5000원

곡성군 택시 기본요금(2km)이 다음 달 1일부터 1000원 인상된 5000원이 적용된다. 곡성 택시 요금은 오른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이다.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달 10일 택시 요금 조정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 운송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2km까지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거리 요금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

원으로 기준 거리가 줄었다. 시간당 15km 이하 운행하는 '시간 요금'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시간이 짧아졌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운행과 사업구역 외 운행 때 적용하는 할증 요금은 이전과 같다. 곡성군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 당일부터 곡성군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조정이 차례대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조정을 완료하지 못한 택시에 대해서는 조건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하세요 보성군 11월 3일까지 접수

보성군이 지역 내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까지 개인·단체로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받는다. 지정 대상은 문화재보호 또는 전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물·무형물·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2017년 지정된 12점 이후 현재까지 추가 등재된 향토문화유산은 없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소유자나 단체는 보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화유산은 1차 전문가 현장 방문·소유자 면담·자료 조사 뒤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검토와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보성군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